

## 강진의 찬란한 봄...영랑 詩魂과 모란 향기에 취한다



세계모란공원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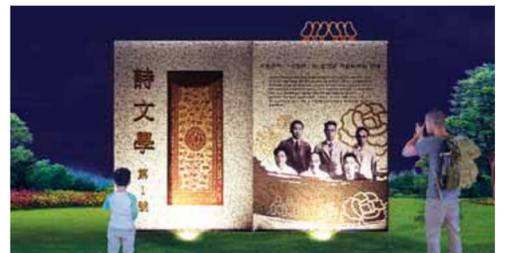


수령 350년 '모란왕' 활짝 피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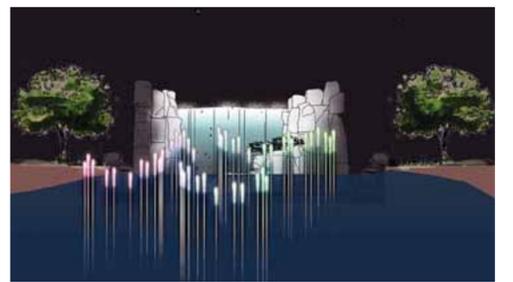
사계절 모란향기를 머금은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 뒤 세계모란공원에 수령 350년으로 추정되는 '모란왕'이 활짝 폈다. 모란왕은 폭과 키가 2m에 이르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모란으로, 대구광역시 경주김씨 고택에서 이곳 강진 세계모란공원으로 옮겨 왔다. 강진군은 한국의 모든 모란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담아 '모란왕'으로 이름 붙였다. <강진군 제공>



영랑생가



시문학지 조형물



연못갈대

강진은 지금 영랑의 시혼과 모란 향기가 넘쳐난다. 특히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시인 영랑 김윤식 선생을 기념하는 문학제와 함께 국내 유일의 모란 테마공원인 세계모란공원의 개장을 앞두고 모란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강진으로 쏠리고 있다.

■ 국내 유일 사계절 내내 '모란의 향기 속으로'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이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서정시인 영랑 김윤식과 그의 삶, 흔적, 생가를 중심으로 세계모란공원을 조성했다. 모란을 소재로 한국 내 유일 테마공원이다.

강진 세계모란공원은 기존 강진읍내 보은산 도시공원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해 친환경적 생태문학공원의 의미도 담고 있다. 모란과 작약을 심어 시작을 알렸고 28일 오후 4시 개장식을 갖는다.

강진군은 사계절 내내 가동하는 사계절모란원, 세계 각국의 모란을 볼 수 있는 세계모란원, 생태연못과 폭포, 공원 전체를 한눈에 조망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를 만들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계절 내내 모란을 볼 수 있는 유리온실인 사계절모란원이 눈길을 끈다. 유리온실은 봄에 모란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의 전문 기술을 통해 저온저장을 이용, 사시사철 내내 모란을 볼 수 있게 했다. 일반적으로 모란꽃은 봄의 끝자락인 4월 한 때, 5월 즈음에만 볼 수 있다.

세계모란원은 프랑스와 일본, 네덜란드, 독일, 미국, 영국의 국가별 모란을 심어 이 곳을 찾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강진군은 아예 모란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 '영랑모란'을 상표출원하고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선점했다.

이동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 산업적 가치가 있는 모란·작약은 농민들이 재배해 공급기반을 만들어 군민들의 소득을 높일 계획"이라며 "세계모란공원을 문화관광콘텐츠로 적극

### 세계모란공원 내일 개장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사계절 유리온실서 구경할 수 있으니까

야간경관 조명으로 밤에도 '활짝'  
28·29일 영랑문학제 다양한 행사  
강진원 군수 "또 하나의 강진 상징될 것"

활용해 미래 강진군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영랑 김윤식 선생과 모란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만든 테마 문학공원인 세계모란공원은 영랑생가와 함께 강진을 대표하는 명소"라면서 "강진의 문학과 자연을 잘 조화시켜 세계모란공원이 강진의 또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모란공원 더 빛낼 야간경관 관람객들 '원더풀'

세계모란공원은 낮 못지않은 밤을 구현했다. 야간경관 조명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 부족함이 없도록 빛을 적극 활용했다. 강진의 밤이 아름다운 이유를 찾는 이들에게 세계모란공원은 해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군이 조성한 '연제나 봄날인 모란공원'은 우선 디자인 개념을 모란공원의 품격을 높이는 빛,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빛, 편안하고 쾌적한 빛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빛의 연출계획을 소주제에 따라 '연제나 빛 : 진입대나우 숲', '연제나 빛 : 산 언덕', '청향정담 : 모란원1', '청향정담 : 모란원2', '청향정담 : 연못1', '청향정담 : 연못2', '청향정담 : 석가산', '숲 속 조우 : 전망데크' 등으로 세분화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14회 영랑문학제-감성의 깊은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 '남에는 영랑, 북에는 소월', 영랑의 시혼과 함께하는 제14회 영랑문학제 및 세계모란페스티벌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강진읍내 세계모란공원과 영랑생가 일원에서 열린다.

영랑문학제 개막식과 영랑시문학의 밤 행사는 28일 오후 5시 영랑생가에서 영랑시문학상 시상, 전남도립국악단의 창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축하공연으로 이뤄진다.

제14회 영랑시문학상 수상자는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인 오세영 시인이다. 수상시집은 '가을빛소리'다.

오세영 시인은 "영랑시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돌아보면 나는 영랑시문학상과 인연이 많았다. 첫 회심사를 한 적이 있었고 시문학관 건립과 초창기 문학상 운영에 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이상이 굽이굽이 돌아 먼 길을 찾아오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오 시인은 1942년 영랑에서 태어나 서울대 인문대 교수를 역임했다. 시집 23권과 학술서적 23권을 냈다. 만해문학상과 목월문학상, 정지용문학상, 소월시문학상을 받았다.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한국시인협회장을 지냈다.

영랑시문학상은 2016년 중견시인들이 낸 모든 시집을 대상으로 예선에서 8권을 골라 본선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6회 전국영랑시낭송대회는 29일 오전 10시 접수분에 한해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전국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29일 오전 10시에는 열네번째 전국영랑백일장이 영랑생가 일원에서 열린다. 비가 오면 강진읍내 강진아트홀에서 치러진다. 참가대상은 전국 초, 중, 고등부, 대학·일반부로 나뉜다. 부문은 운문과 산문. 입상자는 29일 발표되며 강진군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개별 통지한다.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다. 부상을 함께 받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 착한보청기

# 보청기

#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 화정역 역에서 100m가량 직진 후, 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지사 직영점 062-364-8800**